

클래식 포트 하우스와 그들의 전통

빈티지 포트와 영국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유명 생산자 대부분이 영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크로프트, 다우, 폰세카, 그레이엄, 테일러, 와레 같은 유명한 빈티지 포트 하우스들은 본디 영국의 상인들이 세운 것으로, 오늘날까지 가문에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3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너 곳을 포함해 이 유서 깊은 기업들은 각각 나름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빈티지 포트 하우스들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 되는 핵심 특징들을 갖는다.

먼저, 모두가 최고 수준의 '킨타' 혹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다. 이 유명한 포도원들은 그것을 소유한 기업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그들의 명성이나 하우스 스타일의 초석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은 역사적인 곳들로 오래된 포도나무들이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고,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포도원 수준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런 하우스들은 최소한 한 세기 이상 최고 빈티지 포트 생산자로 이름을 날렸고, 빈티지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일관되게 우수한 와인을 생산하는 오랜 기록도 갖고 있다.

모두 독특하고, 일관성 있고, 식별 가능한 나름의 하우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기업이 소유한 포도원의 유일무이한 테루아와 물려받은 전통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일관성은 기술과 경험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문 소유의 기업에서 확연히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하우스의 와인들은 모두 명성이 덜한 하우스의 제품과 비교해 출시 당시든, 2차 시장이나 후에 경매에서든, 더 높은 가격을 자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우스들은 모두 전 세계로 유통되어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와인 리스트와 와인 컬렉션에서 그 자태를 뽐내는 빈티지 포트를 생산한다.

빈티지 포트에 영적인 고향이 있다면 팩토리 하우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포르투의 역사적 중심, 우아한 18세기 양식 건물에 자리한 이 독특한 기관은 일곱 곳의 영국 포트 하우스들이 함께 하는 협회다. 여기에서 여러 기업의 직원들이 만나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전통적인 오찬을 함께 하며 빈티지 포트를 즐긴다. 또한 격식을 차린 저녁 식사도 있는데, 식사가 끝나면 손님들은 초가 켜진 두 번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음식 냄새가 풍기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빈티지 포트를 맛본다. 분명 와인의 세계에서 가장 교양 있는 전통이 아닌가 생각한다.

